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사도 요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루카 23, 42)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주 (수) 11: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십자가의 길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3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3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11/23(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본당 11:00, 공소 17:30)
세례식 성가 (반주 480, 143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11/25(화) 연중 34 주간 화요일(본당 20:00)
▶11/26(수) 연중 34 주간 수요일(본당 11:00)
▶11/30(일) 대림 제 1 주일(본당 11:00, 공소 17:30)

◎세례식 (오늘)
양우석 다니엘, 강아람 세실리아, 양시원 가브리엘, 양시아 엘리사벳
※새로 신자가 되는 가족에게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위령 성월 연미사 봉헌
11 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연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례분과

◎대림환 만들기
11/29(토) 문의: 강영희 스킨라스티카
신청 마감: 오늘까지 11/23

◎ 온타리오 한인 성당 합동 판공 성사
▪ 기간: 12/15(월) ~ 12/19(금), 12/18(목) 성 유대철 성당 18:00
▪ 판공성사표: 각 구역장님은 보내드린 성사표에 수정및 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창연 신부님 특강 안내
▪ 주제:” 행복 신앙 – 잠비아 선교 이야기”
▪ 일시 및 장소: 12/6(토) 15:00 ~ 17:00, 한맘 성당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 – 올해 마지막 편
이번 주는 성녀 카타리나 편입니다.
내년 1월에 계속 됩니다.
※본당 카페에서 다시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목회의 일시 및 장소: 11/28(금) 20:00 하상실

◎구역장 회의 일시 및 장소 : 11/30 미사 후
2026 년도 구역장이 바뀌는 구역은 새 구역장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1 주 부터 2026 년 미사곡
자비송(325) 대영광송(326) ※대림시기(X), 사순시기(X)
거룩하시도다(327) 하느님의 어린 양(328) 아멘(378)

◎개인정보및 단체방 운영방침
▪ 주소록 관련: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해당란에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신앙생활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STP – 신부님과 걷기
일시:11/30(일) 미사 후
장소: red hill valley trail south (성당 옆 공원 길 따라서...)

단체소식
◎레지오 전체 단원 교육
▪ 일시 및 장소: 오늘 미사 후 13:00, 성전
▪ 대상: 레지오 전 단원 교육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 소식
◎11 월 축일자 11/22 세실리아(손경희, 우민성)

구역 소식
◎11 월 구역 미사 (모임)
1 구역: 12/20(목) 11:00 김영미 스틸라
6 구역: 11/29(토) 18:00 김의수 안드레아
7 구역: 12/ 5(금) 18:00 정원규 마태오

우리들의 정성 ※전교주일 \$20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46 명)
주일헌금 \$1490 교무금 \$25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250

친교 식사 ※테이크 아웃용 종이백/ 비닐은 각자 준비
11/23: 5 구역(소고기 된장 배추국, \$5/\$3)
11/30: STP 12/7: 6 구역 12/14: 7 구역

위령 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11 월 축일자 (12 명)
11/ 1 폐기(조필기)
11/ 3 실비아(박은영)
11/ 5 엘리사벳(김훈옥, 이상은)
11/11 마틴(김영상)
11/22 세실리아(이옥화, 최병순, 최샤니)
11/23 클레멘스(강민수)
11/24 플로라(박인하)
11/30 안드레아(김의수, 이준규)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1/23	권희진 요안나	최다인 안나 최아현 베로니카 김시하 스텔라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2 독서: 임연신 비아	전례부 이재순 데레사
11/30	김성수 베드로	최다희 보나 이준우 바오로	1 독서: 이준서 요한 2 독서: 유세진 라파엘	이준규 안드레아 이준환 파비아노
12/ 7	임연신 비아		1 독서: 권희진 요안나 2 독서: 하유선 라파엘라	박규혜 카타리나 이인선 켄마

모순과 역설의 기로에서

김지황 바오로 신부
영주성당 주임

오늘은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십자가에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인의 왕이 아니라, 온 누리의 임금이심을 선포합니다.

왕이 반란이나 내란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인이 받을 십자가형에 처해지다니요? 못 벗김 당하고 처참한 몰골로 매달린 그분을, 어느 누가 왕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불편한 적은 없으신지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이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의 집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골로 1,20)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높은 지위, 권력과 부를 인생의 목표로 지향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4세,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사랑, 행복, 나눔, 봉사, 배려같은 가치는 책에나 나오는 남의 얘기인 듯 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의 것을 모두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평범하고 소박한 나자렛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하루하루가 고단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도, 토마스도, 마태오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유혹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매순간 흔들리고 넘어가기 쉬우면서도 결코 포기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고통과 모욕과 죽음 또한 참고 인내하기 어려운,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셨습니다. 스스로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를 포기한 임금, 인간의 눈에는 가장 힘없고 무능한 임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손해 보고, 하기 싫고, 이득이 없으면 다 모순이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복음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억울하게 미움받고 모함받은 경험은 오히려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역설의 신비를 이루어줍니다. 그 끝은 기쁨과 행복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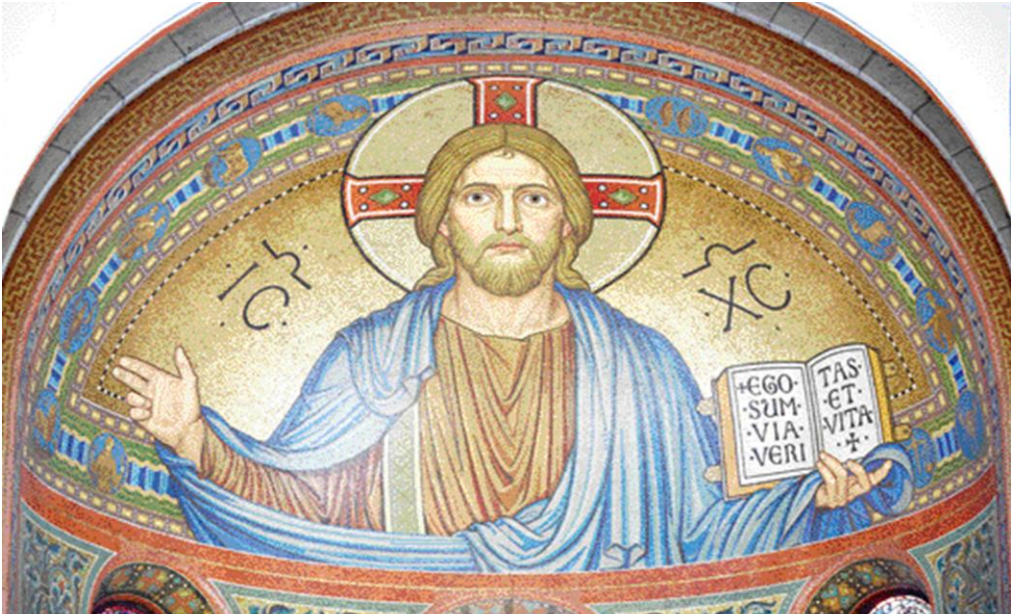


대 철 주 보

배움과 체험의 해
2025 사목지침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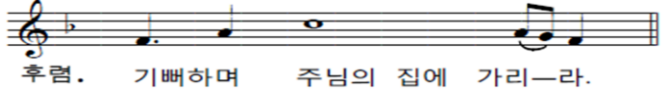


그리스도왕 대축일

(2025. 11. 23.)

제 1 독서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5,1-3

화답송 시편 122(121),1-2.4-5(◎ 1 참조)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몸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1,12-20

복음 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23,35 ─ 43